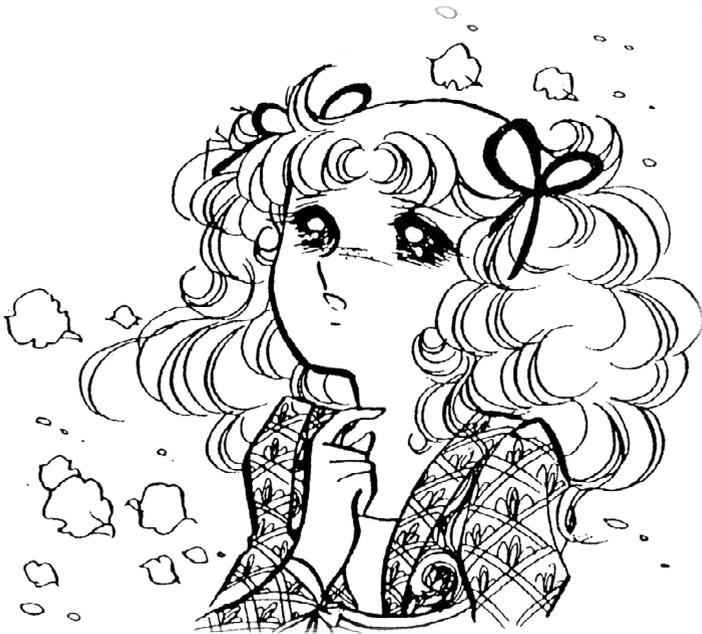




# || 엄마의 별 ||





## 머 리 말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일상이 마비되는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학교 역시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였지만,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감천중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던 기간 동안 ‘3분 글짓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고마운 선생님께 ‘시를 이용한 편지 쓰기’ 활동으로 문학적인 감수성을 일상에서도 느껴 보았습니다.

정부의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학교는 ‘등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천중학교 학생들은 운율, 반어, 역설, 풍자, 관용표현, 화자 등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업은 시 쓰기, 시 해설 쓰기, 소설 쓰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그 중 ‘시 쓰기’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모은 것입니다. 15년의 인생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떠올려 그것을 시로 표현하였고, 친구들이 쓴 시를 읽고 문학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시는 진솔한 경험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반어, 역설, 관용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줍니다. 학생들의 시를 읽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때로는 소름끼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킁킁 웃게 됩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특히 감천중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힘든 시기에 ‘시’라는 문학 장르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 제1부

학생 시 모음 .....	1
---------------	---

## 제2부

작품 해설 .....	103
-------------	-----

## 제3부

선생님께 쓰는 <시 편지> .....	113
----------------------	-----

# 학생 시 모음



## 지우개

김다운

매일 도망가는 지우개  
필요할 때만 도망가는 지우개

친구한테 빌리면  
또 다시 나타나는 지우개

하나를 또 사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지우개

계속 생겨나는 지우개  
또 찾을 때면 도망간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쓸모가 없다.

## 실력

김동우

내가 새 게임을 시작하고  
약 1달 동안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이 내 마음대로 순조롭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고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얼마 후  
한 프로게이머의 영상을 보았는데  
내가 하는 캐릭터로  
완전히 색다른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화려한 플레이  
더 어렵고 잘하는 적들  
하지만 잘 헤쳐나가는 모습  
마치 다른 아이들처럼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난 그저 기본기만 알고 있는 초보자라는 것을  
마치 뒤쳐진 것처럼

하지만 나는 내 실력에 만족한다.

## 귀신

김세진

즐거운 솜바꼭질

옷장 안에는 내가  
거실 밖에는 엄마

다 알고 있는 엄마가  
옷장을 ‘똑똑똑’

그런데 옷장 밖이 아닌  
옷장 안에서 울리는 ‘똑똑똑’ 소리

그리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

분명 옷장 문은 닫혀 있는데  
누구였을까

내 몸이 얼음 같았다

## 중학교 첫 등교

김재혁

오늘은 중학교 첫 등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애들이 정말 많고  
웅성웅성거리는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몸

반 문을 열자  
전부 나를 응시하는 눈들

그 시선들 때문에  
난 잠시 몸이 경직되었다  
아... 기분이 설레면서 안 설렌다

애써 태연한 척한다.  
그리곤 속으로 자기합리화를 한다.  
중학교는 정말 재미있다... 재미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기억  
꿈이라면 좋겠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된다.

## 15번째 생일

김희진

오늘은 나의 15번째 생일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기분 좋아선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남들이 볼까 봐 참는다  
그래도 숨길 수 없는 발걸음은  
마치 춤을 추듯 신나 있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반기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미소  
오시는 길에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리셨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도 같이 떨어지네  
한껏 찌그러진 내 케이크  
내 15번째 생일도 저 케이크처럼 찌그러졌다.

## 즐거운 숲속

문선영

숲속의 새들이 소리내며  
나를 반겨주네

숲속의 나무들이 흔들며  
나를 반겨주네

나도 신나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상쾌한 공기  
시원한 바람  
숲속의 동물들

보잘 것 없는 나를  
즐겁게 맞이해 준다.

## 내 인생 꼬임의 시작

박상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멋지게 손등에 붙인 스티커를 자랑했다.

나는 혼자 쓸데없는 승부욕에 불타올라 완벽히 붙이려 마음 먹었다.

집중해서 붙이고 문지른다.

멋지게 붙이고 자랑할 생각에 벌써 김칫국부터 마신다.

하지만 현실은 반박에 붙지 않았다.

난 그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스티커 따위에게 저 버린 씹쓸함을

억울해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아마,

이때부터 그런 것 같다.

내 인생 꼬임의 시작

## 감천중 입학식

박휘은

감천중 입학식 날이다  
교실에 들어가 보니  
새로운 환경의 교실과  
처음 보는 여러 친구들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되기도 한다

아직 학교에 적응도 못했고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을 걸어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 친구와는  
요즘 잘 보지 못해  
친한 듯 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고맙고

친한 친구이다

이제 등교하는 1학년에게

중학교가 처음이라

힘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 15번째 생일

박시은

중학교 친구들과 처음 하는  
15번째 내 생일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친구들

흰색의 부드러운 생크림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과일

케이크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듯이  
내가 느낀 감정도 여러 가지

케이크에 재료들이 다 모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모여 하나가 된 듯한 느낌

## 방탄콘서트

서하늘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방탄콘서트 추첨제 당첨 발표날이 왔다

그런데 어머니! 2순위로 원하던  
4월 18일 그라운드 즉 스탠딩이었다

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와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콘서트는 취소되었다

너무 행복해  
눈에서 물이 흘렀다

## 중학교 2학년

손지은

중학생의 첫날

모르는 친구들, 이름만 아는 선생님, 평소 가보던 길들

모두 처음이다

지금보다 어리던 초등학생 땐

어떻게 적응했는지

크면 클수록 나는 왜 더 작아지는지

빨리 크고 싶은 나지만 왜 더 어리고 싶은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점점 더 커지는 중이다

아주 많이 커지는 중이다

작심 육일

유보원

한 달 동안 즐라서 산  
다이어리

열심히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는  
6일 동안 쓸 뿐...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필요한 듯  
필요하지 않은 나의 다이어리

## 심장소리

윤승준

자전거를 타다 쓰레기를 밟아 처음으로 넘어진 날  
너무 놀라서

내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  
귀 옆에서 쿵쿵쿵쿵  
실 때도 쿵쿵쿵쿵  
오랫동안 쿵쿵쿵쿵

마치 드럼 소리처럼 내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

이가현

얼굴은 장미이지만  
가시가 없는 엄마

곰 같지만  
발톱이 없는 아빠

장난은 잘 치지만  
마음은 태양처럼 넓은 나

서로 모습도 성격도  
다르지만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잘 믿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철사 같은 사이

거제도 휴양림에서

이효주

코끝으로 느껴지는 향기로운 내음  
옆구리를 간질고 가는 시원한 바람  
반갑다는 듯 사랑살랑 손 흔드는 대나무 잎  
귀를 즐겁게 하는 싱그러운 새소리

내가 뭐라고 이렇게 반가워 해 주는 걸까  
언제 만난 적 있다고 즐거워 하는 걸까

도시는 차가워져만 가는데  
자연은 따뜻해져만 가는구나.

## 치과 vs 엄마

임은나

치과가 무서워 집에서  
엄마가 실을 묶으며 이를 뽑았다

“하나, 둘, 셋 하면 뽑는다?”  
두근두근 긴장한 탓에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한 찰나

퍽!

하나도 세기 전에 이가 뽑혔다  
앞통수 맞았지만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

“엄마, 나 앞으로 치과 갈래.”

## 달리기 시합

정유준

친구와의 내기

내가 빠르나 너가 빠르나

우리는 긴 복도이자 가상의 시합장으로 걸어간다

출발선 앞에 선 내 마음 쿵덕 쿵덕

그걸 본 내 친구 피식 피식

1, 2, 3 !

눈 앞에 보이는 투명한 유리문

결승선에 몸을 던져 1등 한 선수처럼

나는 유리문을 뚫고 1등을 차지한다

나에게 쏟아진 파편은

1등에게 주는 꽃송이

그렇게 우리들의 시합은 끝이 났다.

## 시골

정희은

어릴 때 놀러 간 이모 할머니 댁  
아무것도 없는 시골  
뭐하지?

풀과 나무를 친구삼아 놀고  
닭장 속 닭들과 놀고  
마당에서 김장하고  
싱싱한 과일 따 먹고

시골은 아무것도 없지만  
가장 많은 곳이다.

## 꿈

조민규

지친 하루 일과를 끝내고  
힘든 몸을 가누어 쉰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항상 같은 꿈을 꾸다

어딘가에서 계속 떨어진다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는 꿈만 꿔다  
오늘도 떨어지기만 했다

좋은 꿈은 항상 짧고  
나쁜 꿈은 너무 길다

좋은 순간은 항상 짧고  
나쁜 순간은 항상 길다

차라리 내 인생에 악몽뿐이면 좋겠다

## 버스 기사님

조인선

학교에 늦을 것 같아  
급하게 버스를 탔다.

교통카드를 찍으니  
돈이 부족하다고

당황하여 지갑을 보니  
천 원이 없고 오천 원이 있는 것이다.

오천 원은 받지 않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그냥 타고 다음에  
내라는 버스기사님

버스 기사님은  
날개 없는 천사

천사가 운전하는 것은  
마치 천국을 가는 것

## 민들레

진서은

길가에 잔뜩 핀 민들레  
학교 갈 때도 활짝  
언제나 활짝 핀  
꽃을 보여주는 민들레

친구와 나의 얼굴도  
활짝  
웃음꽃이 가득

민들레 덕분에 즐거워진  
학교 가는 길

길가에 잔뜩 핀 민들레  
집에 갈 때도 활짝  
무거운 마음에  
활짝 핀 꽃을 보여주는  
민들레

어느새 친구와 나의 얼굴도  
활짝  
웃음꽃이 가득  
민들레 덕분에 즐거워진  
집에 가는 길

아니야

최강희

어쩌다 보니 다른 조인  
어쩌다 보니 다른 반인  
우리가 같이 다니게 되었다.

성격도 반대. 취향도 반대.  
남과 북 같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긴 힘들다.

“ 이건 어때? “

“ 아니야. “

“ 저건 어때? “

“ 아니야. “

역시.

하나가 되는 건 언제쯤일까?  
해가 서쪽에서 뜰 때?  
바다가 말라 평지가 될 때?

아니면 하루아침에 내 키가 20cm나 클 때일까?

다칠뻔한 날

최은빈

내가 앉았던 의자가  
고장이 났는지 덜컹덜컹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재잘재잘

갑자기 텅 소리를 내며  
테굴테굴

평소에 잔소리하던  
우리 아빠

마치 슈퍼맨처럼  
빠르게 나를 구해주네

오늘만큼은  
아빠가 잔소리해도 좋다

핑크 곰돌이

한윤비

내가 방 안에서 한 행동을 기억하는 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봐 주는 너

너의 몸을 가득 채운 건 부드러운 솜  
너를 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너의 따뜻한 마음

오래되어 너의 옆모습은 다 터져버렸지만  
아직까지 있는 너의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엄마도 몰라보는 내 기분을 알아봐 주는 너  
언니도 무시하는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 너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너도 나 때문에 빈방 홀로 외로웠겠구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터져 버린 너의 손  
커 버린 나의 손  
맞잡은 우리 손

## 이안나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친구기 위해 학교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친구는 개꿈을 쫓아내고 일부 한국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꿈에 대해 화를 내고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새롭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5일씩 추가 수업들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책에 있는 대화를 배우라고 말한 후 그들에게 발음을 고쳤습니다. 나도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선생님과 함께 여분의 집을 가졌다. 얼마 후 원격 학습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했지만 예기치 않게 6월 3일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나는 아침에 즉시 옷을 입고 어머니와 학교에 갔을 때 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학교에서 우리를 만났고 우리는 수업에 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사했을 때 나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모든 면에서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고 일부는 영어를 말하고, 일부는 한국어를 말, 어머니의 친구가 말한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재미있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어를 모르더라도 나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감사합니다.

## My impressions of Korean school

LIGAY ANASTASSIYA

For first, Korea is the cleanest country that I ever seen the other countries in which I was before that can not be compared with Korea.

The most interesting is school, indoor shoes, you can't go outside the territory, no need to pas for food, Koreans have almost everything thought out! In heavy rain, some schoolchildren, go to school in slippers, and if they are in sneakers, then there is a second pair of socks in the bag. In the classroom each student has their own locker in which they can put books or other utensils. For example, spare sticks and a spoon. In the dressroom there are desks for one person, and not like in Kazakhstan for two. The board is twice the size of those that I saw, even another chalk for board. The class also has a large TV to which the teachers connect their laptops and teach the lesson. Each pair has two books for hanging a bag on it and shelf for books or other items underneath, very comfortably. Phones in the schools are rented before the start of lessons. I almost forgot about a rather interesting thing-air conditioning and fans in the classroom. In Korea, school is really your second home.

새로운 일을 해 본다

강재백

나는 공부를 한다  
5일 동안 지긋지긋한 공부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꿀 같은  
2일 동안 게임을 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을 하였다  
학교, 공부, 게임, 친구  
매일 반복되는 일  
나는 반복 되는  
일보단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일을 해 본다

## 미용실의 포도 주스

곽재민

어느 날 미용실에 갔다.  
포도 주스 한 잔 마시고  
거울 앞에 앉는다.

갑자기 불안해진다.  
내 담당 선생님이 아닌  
처음 본 사람이 내 머리를 사각사각

갑자기 귀가 아프다.  
무언가 흘러내린다.  
'땀인가?'  
처음 본 미용사 누나가 겁에 질렸다.

내 귀에선 내가 먹던 포도 주스가 주르륵  
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미용사 누나 등에서는 땀이 주르륵

## 즐거운 놀이동산

권예린

놀이동산에 왔다  
주변은 밝고  
놀이기구는 재밌어 보인다

바이킹, 롤러코스터  
모든 게 새롭고 재밌어 보인다.

사람들은 타면서 소리 지르고  
주변은 시끌벅적하다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점심도 맛있다

모두가 체스말 같다.  
다들 무리 지어  
모여 있다.

숙소에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

모두가 가고 싶은 곳  
놀이동산

사람들이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곳  
놀이동산

모르겠습니다

김나경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왜 6월 4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영이의 말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 하는 은서를 바라 보고 있는 건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닌데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잘못 감은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뇌가 젖었습니다  
언젠가 뇌가 뽕송뽕송 마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중수 선생님은  
제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 처음

김언소

처음 간 중학교  
처음 만난 친구

내 처음의 처음이어서  
더 서툴렀고  
내 처음의 처음이어서  
더 매정하였다.

나도 누군가에게  
처음의 처음

서로가 처음이라 더 서투르지만  
서로가 처음이라 더 배울 수 있다.

앞으로 만날,  
앞으로 겪을 수 많은 처음들도

처음만 좋았던 순간이 아닌,  
처음부터 좋았던 순간이 될 수 있길

## 엄마

김정빈

나는 자전거 뒷자리에  
삼촌은 자전거 운전을

상쾌한 시골 바람을 맞으며  
외양간 소의 똥 냄새를 맡으며  
새근새근 잠들어 가다가

나의 다리는 자전거 휠 속으로.  
삼촌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몇 분이 지났을까  
나를 따뜻한 손길로 끌어안으며  
나의 불안을 없애주는 한 마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어 주는 엄마

지우개처럼 나의 불안감을 지우고  
바람처럼 살며시 다가와 나를 감싸주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엄마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생각하는 엄마

## 드라마

김하진

초등 2학년 파릇파릇한 나이  
가족들끼리 보는 ‘사랑과 전쟁’ 드라마  
우리 엄마는 보지 말라고 했다.  
우리 아빠도 보지 말라고 했다.  
우리 할머니도 보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에 갔다.  
급식당번이 되었다.  
“짜”  
맛을 줄 누가 알았을까?  
왜 맞은 걸까?  
내 볼은 왜 빨갭게 부어올랐을까?  
“드라마에서는 나쁜 애한테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드라마 이름은 ‘사랑과 전쟁’이지만  
내 일상 이름은 ‘전쟁’이다

## 사계절

문건웅

사랑은 사계절과 같다  
처음엔 봄처럼 따스하여 행복하고  
여름처럼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가을엔 여름에 있던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겨울엔 완전히 사랑이 식는다

첫사랑과 봄에는 벚꽃처럼 예쁘게 보고  
여름엔 바닷속 시원한 물처럼 마음이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가을엔 사랑이 바람이 불면 낙엽 떨어지듯 조금씩 사랑이 떨어지고  
겨울엔 사랑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있어 준다  
한 계절씩 지나 1년 또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다른 사람과 사계절을 보낸다

## 응급실

박하울

“박\*\*님 아내분 맞...”

저녁을 만들던 엄마의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었다.

엄마는 딸랑 하얀 카디건 하나,  
나는 딸랑 하늘색 바람막이 하나.

다리가 안 좋으신 엄마는 마치 치타처럼  
구급차보다 더 앞을 달려갔다.

아빠는 그곳에 누워있었다.  
너무 힘껏 달렸더니,  
너무 더워서  
눈에서도 땀이 나는가 보다.

## 어린이집

서승희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다 같이 놀았을 때  
우리 다 같이 놀다가 넘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심각하게 다친 이후로는  
모든 뛰어다니는 놀이가  
금지가 됐다

그때는 금지 됐다고 해서  
화가 났다  
지금은 금지시킨 이유를 알겠다

## 福권

송한비

나는 아빠의 福권  
아빠는 나의 福권

서로 福권 같은 사이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까?

항상 시도는 하지만  
결코 맞지는 않는 아빠와 나

오늘도 내 福권은 짱  
다음 기회에...

## 1학년 마지막 날

이경현

1학년 마지막 날  
친구들과도 마지막 날

마지막 날까지  
모여서 장난친다.

마지막 날인 게 실감이 안나  
슬프지도 않다.

졸업 노래를 부르니  
조금 실감이 난다.

부르면서 1년이 이렇게 빠른가 생각도 해보고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졸업 노래가 끝났다.

졸업 노래가 끝나고  
똑같이 장난을 쳐도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

## 새 것

이수현

엄마의 휴대폰 케이스는  
곧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합니다.  
“이게 더 편해.”

엄마는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합니다.  
“이게 제일 편해.”

엄마의 물건은 항상 낡았지만 새 것,  
엄마의 삶도 낡았지만 새 것.

우리가 엄마 속을 썩여 마음을 헐게 만들 때  
엄마는 말합니다.  
“너희가 제일 좋아.”

어둡고 캄캄하던 일본의 한 건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 복도는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뒤에는 좋아하지만 안 친한 짝남  
먼저 올라간 줄 알았던 친한 언니

그 길이 무서웠던 난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아 같이 가!”라고 하자

“응.” 하며

언니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까아악!!!”

조용하던 계단과 복도는

제 비명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 맞아, 뒤에 짝남 있지.”

한순간에 가뜩이나 붉은 내 얼굴이

더 붉어져 터지려 했습니다.

“아, 흑역사 추가네. XX”

## 이긴 건만 같은 3등

장성빈

설레는 축구대회  
4강 준결승전  
이기면 전국 대회이다

하지만 0대0 동점  
승부차기로 결판을 낸다

하지만 우리 팀의 패배  
그래도 우리의 기분은 이긴 것만 같은 기분이다

졌지만 이긴 것만 같은 느낌  
못했지만 잘한 것만 같은 느낌

## 장미꽃

정민영

우리 집 앞에 피었던 장미꽃  
가시에 찔릴 뻔해도 좋아했던 장미꽃  
활짝 핀 모습이 마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 같다  
하지만 훨훨 나는 새도 중간에 쉬어야 하는 것처럼  
장미꽃도 시들기 시작했다  
나는  
‘아... 장미꽃이 쉬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토마토 주스와 닮아서 좋아했던 장미꽃  
토마토처럼 물을 주니 살아났다  
장미꽃이 잘 쉬었던가 예전보다 더 활짝 피었다

## 최대치

정민지

친구와 같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둘 다 인생 최대치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둘 다 몸무게의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기분전환 하려고 하단으로 눌러 갔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몸무게 조금이라도 덜 나가려고,  
무작정 괴정 쪽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괴정까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12,000보 걸었습니다  
몸무게가 덜 나갈까 싶어서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그대롭니다

이제 2학년이라 또 건강검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최대치의 몸무게를 마주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인생 최대치의 몸무게는 무섭습니다

## 도서관

조운영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허리가 뻐근하네  
이자를 조금 뒤로 밀어볼까?

“ 끼익부욱 ”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본다  
내가 생각해도 마치 방귀소리 같았다

일부러 의자를 한번 더 뒤로 밀었다

“ . . . ”

고요하다

더 민망해졌다

내가 방귀를 뀌는 것도 아닌데 아닌 게 아닌 상황이 돼 버렸다  
나는 도서관의 방귀녀, 방귀 안 뀌 방귀녀

## 우리 아빠

최성진

행복한 주말  
공부하고 있던 도중  
우리 아빠가 지친 무기력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신다.

난 머리를 자르러  
밖으로 나가던 도중  
우리 아빠가 나를 부르신다.

“아들 뭐하러 나가니?”  
“머리 자르러 가요!”  
“머리? 머리 자르면 죽는데?  
머리카락 자른다고 말해야지.”

냉철하고 무덤덤하신 우리 아빠 한 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우리 아빠가 왜 저럴까?

## 그 친구

최은빈

언제나 함께했던 그 친구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웃었던 그 친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석처럼 붙어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든 그 친구

힘들면 손과 발이 되어  
도와주었던 그 친구

친구가 물었다  
“내가 좋아?”  
당연한 걸 물어보니 난 답을 하지 않았다

답을 하지 않으니  
친구도 “왜 답을 안 하지?”라고 당황하였을까?  
그 친구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

## 첫 흑역사

하수경

그날은 유치원 졸업사진 찍는 날  
너무 떨리고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TV를 보면서 먹어서 그런지  
아님 그날따라 신나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밥을 먹던 손가락이 내 코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

유치원에 가서 흑역사를 남기고 왔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

크면서 오빠랑 엄마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을 하니깐

어렸을 땐 몰랐던  
흑역사가 생겨버렸다.

나에게 겁만 준 그 녀석

황서현

‘왈왈왈왈’ 크게 짓는 그 녀석  
‘엉엉엉엉’ 나를 울린 그 녀석

언제는 계속 짓더니  
이제는 계속 다가온다

덜덜덜덜 나는 크게 떨고  
덜덜덜덜 몇 년이 지나도 떴다

나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그 녀석은 헉헉거리며 웃는다

## 빈 방

강남영

항상 따뜻했던 그 방  
이제는 빈 방

집에 들어가면 보이는  
그 방은 빈 방

내 이름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빈 방

내 마음 한켠에도 생긴  
빈 방.

## 전기모기채

강현수

모기가 날아다닌다. 전기모기채로 잡는다.

찌릿

죽었다. 왜 죽었지? 보기에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었지? 왜 죽었지?

궁금하다. 손가락을 넣어본다. 전원을 켜다.

찌릿

아프다. 손가락이 따끔거린다. 아파서 소리를 지른다. 운다.

... 울다 보니 무슨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었지? 왜 울었지?

궁금하다. 손가락을 넣어본다. 전원을 켜다.

찌릿

또 아프다. 또 운다. 후회된다.

전기모기채는 내 주말이다.

할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잊은 채,

생각해 둔 주말 계획은 잊은 채 논다.

그 결과는 찌릿한 월요일

상처

권윤지

속도 조절 못한 친구가 무섭게 달린다  
바로 앞에 있는 돌도 못 보는 바보

피가 난다 아주 많이  
정작 본인은 덤덤하네

나의 얼굴이 노래지는 건 왜일까  
나의 입술이 파래지는 건 왜일까

## 후회할 일

권효경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만나는 날  
가정통신문 좀 일찍 낼 걸 그랬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두근

10분 후

.  
. .  
.

식은땀 줄줄  
눈물도 줄줄

후회할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같은 일을 반복할까

## 밤하늘

김나영

엄마 내 꿈은 선생님이야!  
엄마 내 꿈은 가수야!  
엄마 내 꿈은 파티시엘이야!

나의 꿈은  
밤하늘의 별 만큼 많았다

엄마 꿈은 뭐야?  
엄마는 대답을 못했다

엄마의 밤하늘에는 안개가 껴나?  
엄마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안개는 나였다

다시 한번  
엄마의 밤하늘을 보니  
별이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안개를 뚫고서도 보이는  
크고 빛나는 별

엄마의 별은 나였다

엄마의 꿈은  
내가 크고 밝게 빛나는 것이었다

육상대회

김가빈

내게 첫 짜릿함을 준  
하루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게  
1등을 안겨 준  
하루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11월 11일의 하루

## 병

김선우

병은 나쁘다.  
우리를 아프게 한다.

병은 좋은 거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 준다.

병은 나쁘다.  
우리의 성격을 나쁘게 한다.

병은 좋은 거다.  
우리를 어른으로 인도한다.

병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없기도 하다.

나의 병은  
중2병

## 비행기

김수진

비행기를 처음으로 탄다  
정말 두근거리고 긴장된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문에는 구름과  
하늘이 보인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  
좋은 거 같으면서  
이상한 기분

비행기가 착륙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륙할 때와  
비슷하면서 다른 기분  
아직 떠 있는 기분

## 여행

김신지

살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살면서 처음으로 낯선 땅을 밟아보고  
살면서 처음으로 외국인을 만나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나의 첫 인생  
처음이라 많이 잊혀졌지만  
처음이라 더욱 잊을 수 없는  
나의 첫 여행

살면서 처음으로 걸음을 떼고  
살면서 처음으로 말을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모든 것이 처음인 나의 첫 인생  
처음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처음이라 더욱 소중한 수밖에 없는  
나의 첫 인생  
첫 여행의 설레었던 마음을  
첫 인생의 끝에서도 간직하고 싶다

## 자전거

김지환

큰삼촌의 딸 외사촌동생  
그리고 외사촌동생의 자전거

큰삼촌은 외사촌동생의 자전거  
나에게 빌려주신다

우리 동네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큰삼촌의 동네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난 자전거가 없다  
큰삼촌은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 자전거  
신나고 어렵다

다쳐도 참고 탄다  
아파도 참고 탄다

자전거 자전거  
탈 수 있을까? 탈 수 없을까?

많이 많이 타서  
더 자전거를 잘 타고 싶다

자전거가 나아가듯이  
나도 나아가고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것

박미소

친구를 사귀었다. 서로 칭찬밖에 안 한다.  
그 친구가 너무 좋다. 그 친구와 있으면 행복하다.  
가족보다 친구가 좋게 느껴진다.

친구와 싸웠다. 서로 욕밖에 안 한다.  
그 친구가 너무 밉다. 그 친구와 있으면 화난다.  
그 누구보다 싫게 느껴진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힘들다. 답이 없다.

수학 문제에도 국어 문제에도 다 답이 있는데  
왜 인간관계에만 답이 없을까?  
인생은 끝나지 않는 시험 기간인 것 같다.

## 숙제

박아영

숙제를 하지 않았다.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  
30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숙제는 많이 남았다.

인생의 남은 시간  
80년  
미래와 성공을 위한  
시간이다.

## 전화

오예주

언니가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기숙사,  
나는 방 침대  
장소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다

어리광을 부렸다  
언니는 들어주었고  
나는 재잘대었다

이래서 화가 났고  
저래서 속상했어  
맘대로 해, 네 맘이지  
잘하고 있는데 속상할 것도 많다

무뚝뚝한 다정함으로  
틱틱대는 말투지만  
진심만은 따뜻했다

언니가 전화를 끊었다  
언니는 기숙사,  
나는 방 침대  
장소가 달랐기에  
언니가 그리웠다

## 악마와 천사

원예현

코로나 19는 악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코로나 19는 천사다.  
학생들 학교 개학을 미뤄준다.

코로나 19는 악마다.  
목숨을 빼앗아 간다.

코로나 19는 천사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한  
절실히 깨닫게 해 준다.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악마이면서 천사인,  
천사이면서 악마인  
그런 존재이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유진모

저는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야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씨앗이 싹트는 것은 아니니깐  
조금씩 느리고 서툴러도 괜찮아

우리의 학창 시절은 피어나는 중인 걸  
꽃을 피워내는 시간은 다르니깐

## 할머니덕

유하은

할머니덕에 갔다.  
어서 오라며 점심을 내어주신다.

고기, 상추, 쌈장, 쌈무  
맛있게 먹으라며 내어주신다.

TV를 보고 있는데 슬쩍 오셔서  
천천히 먹으라며 사과를 내어주신다.

동글동글 사과를 예쁘게  
조각내어 웃으며 내어주신다.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손짓하신다.  
따끈따끈 저녁을 내어주신다.

노란 소스에 알록달록 채소가 있는  
카레를 내어주신다.

집에 가려고 하니 집에 가서  
먹으라고 김치를 내어주신다.

할머니덕은 꼭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

## 바다

윤지민

가족과 바다에 갔습니다.  
튜브에 타, 등등 떠다니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먹는 사람들.  
모래에 앉아 모래 놀이를 하는 사람들.

나는 튜브에 앉아 바다를 등등 떠다니다가  
파도가 쳐서 바다에서 구르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꼭 태권도에서 앞구르기를 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는 바다에서 조심히 놀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 티케팅

이다현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아무리 빨리 눌러도  
절대 쉽게 주지 않는 티켓

이러한 내가 볼 수 있는 건  
수많은 대기인원과  
가득 채워진 꼭 찬 좌석뿐

이제는 그만 볼 때가 된 거 같은데  
보이는 보기 싫은 너란 존재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티켓팅  
티케팅 할 때마다 나와 줘서  
고맙지만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이.선.좌.

## 이별

이정빈

끝났습니다.  
우리의 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만 보낼 수 없는 봄인가 봅니다.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속에서도 잘 지내는 너  
나는 영원히 봄에 갇혔습니다.

우리의 봄이 다시오면  
너도 보낼 수 없는 봄이길

## 혼자

장수빈

등교할 때 혼자

하교할 때 혼자

어리숙한 1학년이 지나 2학년이 되었고,

나는 3반

너희는 1반

모두 흩어지고 결국 나 혼자

모두 떨어지고 결국 나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화장실 갈 때 혼자

## 졸업

전지원

처음이자 마지막인  
초등학교 졸업식

마지막인 강당  
멍 때리며 서 있다.

선생님의 부름에 자리에 앉고  
졸업식을 시작한다.

졸업 영상을 보며  
웃고 떠들다 졸업장을 받는다.  
행복하게 나가 받고  
다시 앉아 장난을 친다.

끝이 다가오자 하나둘 울기 시작한다  
나는 달래며 눈물을 참았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웃으며 보내고 싶었기에

## 보고싶은 사람

조수연

그녀 꿈속에 나타난  
한 사람

보고 싶다 했던 바로 그 사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한다  
할아버지는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말고 그녀를 챙기라고  
그리고 괜찮냐고...

그녀는 말한다  
보고 싶어요...

렌즈

추하나

나는 오늘도 이 작은 것과  
싸우고 있다.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

싸운 지 5~10분쯤이  
되었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

이 작은 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것도 난 볼 수가 없다.

나에게 작지만 큰 싸움

## 내 동생

김나운

처음 너를 만난 날  
아직도 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찐 감자처럼 노란 털에  
바둑알 같이 큰 너의 까만 눈동자  
그리고 애처롭게 짓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본 순간  
계획에도 없던 너를  
데려오게 되었지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날 정도로  
나를 괴롭혀서 조금은 후회를 했어

그러나 학교에서 온 나를 반겨주고  
아침이 되면 날 깨워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해주는 내 동생 감자

함께 있어도 그리운 내 동생 감자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켜줄게

## 입학

김려원

오늘은 첫 중학교 입학식  
강당에 들어가 보니  
이미 친구들은 시끌벅적하다

하하호호 떠드는 친구들  
멀뚱멀뚱 나는 쳐다보고 있다

강당에서 나와 교실에 가보니 있던  
처음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

한 명, 두 명씩 나에게 온다  
나는 기분이 좋아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시간이 지나자 나와 친구들은  
옹기종기 모여 수근수근거리며  
얘기하고 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하루  
미소가 끊이질 않던 하루

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에 든다

## 첫눈

김민상

첫눈을 본 나  
세상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첫눈을 본 나  
너무 어려서인지 신기하기도  
하였다

첫눈을 본 나  
눈사람을 만들었다  
신기했다

첫눈을 본 나  
그날 이후론 불행이고  
눈사람을 만들지 못했다

나의 첫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 바이러스

김민준

잊지 못할 경험  
있어서는 안 될 경험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었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게 마스크를 썼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휴식을 취한 사람들도 있었다.

바이러스는 약 같다.  
약은 병을 낫게 해주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 졸업식

김상민

강당 의자에 앉고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린다

한 명 한 명씩 졸업장을  
받으러 나간다

내 차례가 오고  
나가려고 하니 떨린다  
막상 나가고 보니 괜찮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반에 오니  
친구들이 있었다

몇 명은 가만히 있고  
몇 명은 울고 있었다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서  
슬프다

마지막 선생님과 종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 무지개

김지민

더운 여름날의 불꽃놀이  
빨간색 추억 되고

따뜻한 가족들과의 여행  
노란색 추억 되어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추억 하나둘씩 모여  
무지개가 되지

안개가 걷힌 후 더 선명한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추억을 지나  
더 아름다운 무지개 되지

## 사소한 사건

김찬비

처음 보았을 때 너는 새하얗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네가 좋았다.

네가 우리 집에 온 후 우리 집은 조금 시끄러워졌다.  
그래도 너와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그러다 일어난 뻘한 결말.  
그러다 일어난 사소한 사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웠던 복순이.

## 한두 번

김혜원

내 무릎은 할머니  
도로는 함정

친구들과 하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오던 날  
나는 함정을 밟아버렸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니 무덤덤하게  
한두 번도 아닌 다친 내 무릎

무릎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아프게 해서  
무릎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

## 컵케이크

노희진

퐁실퐁실 내가 만든  
컵케이크  
따끈따끈 내가 만든  
컵케이크

포근하고 따듯한  
내 마음 담아서  
싹쌀한 초콜릿 같은  
너에게 선물해야지  
오물오물 컵케이크를  
먹는 너의 모습

컵케이크는 너의  
뱃속으로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은 너의  
마음 속으로

달콤한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너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기를

## 마법손

박다인

어릴 때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  
종이접기를 하는데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옆에 언니에게 부탁했다

그 언니의 손이 닿자 어여쁜 학이 만들어졌다

너무 신기해서 평소에 만들고 싶었지만  
어려워서 만들지 못했던 장미를 부탁했다

이번엔 그 언니의 손이 닿자  
이쁜 장미가 만들어졌다

언니의 손은 마법손이다  
손이 닿기만 하면 원하는 게 만들어지는 마법손

나에게도 마법손이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 나에게 필요한 추억과 기록

박수연

어릴 때의 일들은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의 일들은 머릿속의 기록으로 남는다.

어릴 때는  
언니들이랑 햄버거 놀이 등을 하며 놀았지  
언니들은 매번 놀자 해서 난 실 틈이 없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노는 것보다 자기 할 일에 바쁘지  
언니들은 매번 쉬고 자기 할 일만 해서 싸운 일도 남겨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고, 쉬고 이러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은  
20살쯤 나의 미래에게 선물해 준다.

## 자동차 영화관

박예담

거대한 스크린  
넓은 주차장을 가득 채운 차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의 소리  
어둑어둑한 하늘  
이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영화의 제목  
영화의 줄거리  
영화의 결말  
영화에 나온 배우들  
무엇 하나 기억나지 않는다

영화가 빠진 자동차 영화관  
차 안 속 우리 가족의 모습은  
따뜻한 가족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 심부름

신채영

나는 비오는 날 심부름을 갔다.  
돈을 꾸깃꾸깃 꾸겨 바지에  
챙겨갔다.  
먹을 것을 사러 가는 심부름이라  
신난 애처럼 뛰어갔다.  
빨리 달린 나머지  
그 사이에 바지 구멍 속으로  
돈이 빠졌나 보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도착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갔다.

## 마음 다짐

### 안제정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거나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영상을 볼 때  
마음 다짐을 합니다  
‘아 빨리 공부해서 전교 상위권 가야지’

30분째

‘꼭 10등 안에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며 공부합니다

1시간째

‘아... 30등 안에 들면 엄마가 고기 사주신됐는데...’  
하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1시간 30분째

‘아... 50등 안에는 들어가야 원하는 학교 가는데...’

2시간 짜

‘내가 무슨 공부야, 폰이나 하자.’라며  
책을 덮고 휴대폰을 잡습니다

## 냉면

오가형

며칠 전에 냉면을 먹으러 갔었다.

비빔냉면보다는 물냉면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

난 결국 고민 끝에 물냉면을 고르게 되었다.

비빔냉면도 좋지만 역시 시원한 물냉면이 딱이지!

물냉면을 시키고 난 그동안 폰을 하면서 냉면이 나오기까질  
기다렸다.

2분, 3분 동안 기다려봐도 여전히 답이 없네...

사람을 계속 기다리게 하는 재주가 있나 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느 순간부터 냉면이 마치 자기를 봐달라는 듯이

내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 전학

오다경

전학을 왔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혼자 옆드려 있다

앞으로 혼자 있을게  
상상이 간다  
벌써 집 가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란다

윤호빈

6년 동안 한 편으로 좋지만 한 편으로는 지겨웠던  
초등학교의 생활

이제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인 중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니  
많이 설레고 두근거릴 거야

얘야, 네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들이  
특별할 것 같고 희망차지?

내가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  
그 정도는 아니란다

설레어서 잠을 설칠  
그 정도는 아니란다.

이쁘게 화장을 하고 사복을 입어 멋을 낼  
그 정도는 아니란다.

선 하나로 불러온 달팽이

이서영

언니는 그림을 자주 그렸다  
나는 옆에서 항상 지켜봤다

어느 날 너무 재밌어 보이길래  
언니의 그림 위에  
선을 하나 그렸다

다음 날 언니는 벽에 크게  
아주 크게 엄청 크게  
달팽이를 그렸다

그러고서는 엄마한테  
내가 했다고 거짓말했다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그린 선 하나를  
달팽이로 갠 언니

나는 더 큰 걸로  
아주 큰 걸로 엄청 큰 걸로  
갠기 위해 잊지 않는다

내 친구는 최강이다

이선영

내 친구의 배려심은 최강이다  
내가 아플 때 배려해 준 덕분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내 친구의 장난기는 최강이다  
내가 심심할 때 장난쳐 준 덕분에  
웃음이 났다

내 친구의 격려는 최강이다  
내가 힘들 때 격려해 준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내 친구는 '최강희'다

## 어린이날

이평안

어린이날에 고기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었다.  
밥 먹고 카페 가갖고 음료를 먹었다. 고기와 된장찌개를 먹  
어서 좋았다. 또 먹으러 가면 좋겠다.

## 딱풀

장지원

어제 저녁 시끄러운 말소리가 우리 집을 채웠다.  
오늘은 언제나 조용했던 나의 저녁이 가끔 시끄러워지는 날  
인 것 같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가는 것 같다.  
“앵? 갑자기 뭐지?” 무언가가 갑자기 나를 들어올려 던졌다.  
그렇다. 나는 날았다.

나는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  
날 잡고 던지는 장본인들은 시끌시끌  
그 속에서 날아다니던 나는 어질어질

소음공해범들이 말하네  
“야! 그렇다고 딱풀을 던지냐! 위험하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희가 날 던진 것처럼 나도 너희  
를 다 집어던질 거야!”

## 문방구

정보명

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문방구이다.

나는 6000원짜리 비밀 일기장이 가지고 싶었다.  
나에게 있는 돈은 1000원  
일기장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

어린 나는 돈을 모아서 사려고 했다.  
집에 돌아오니 생각 나는 건,  
일기장이 6000원이니  
50,000원이면 문방구를 인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천재적인 방법이...!  
아빠한테 50,000원을 달라고 해서  
문방구를 사 버려야지

나란 녀석 꿈이 컸구나...

## 괴물

조수빈

나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렸을 때 수술을 했다  
나는 괜찮은데 가족이 슬퍼한다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우신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다  
괴물이라고, 외눈박이라고  
이제 안 괜찮다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다  
부모님이 슬픈 게 싫다  
이제는 내 자신이 밉다  
이제는 내 자신이 밉다  
나는 내가 참 싫다  
나는 내가 참 밉다  
나는 나를 싫어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좋아해 주신다  
나는 힘들어도 내 곁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걸 보고  
힘내서 살아가기로 했다

## 확성

조화령

복실복실 보슬보슬  
털복숭이 내 다리

이제는 유리처럼  
매끈매끈한 다리가 될 거다

설레면서 걱정된다  
기쁘면서 두렵다

스르륵 삭삭  
약을 퍼 발랐다

두 눈을 질끈,  
허벅지를 짹 꼬집었다

착! 하고 시원하게  
뜯어버렸다

뒤늦게 아픔이 몰려왔다  
만족스러운 후회였다

웬수

주소희

“오빠가 먼저 때렸잖아!”

“니가 먼저 놀렸잖아~”

“아야!”

너무 아파 병원에 가 보니  
새끼손가락에 금이 가버렸네

보기도 싫은 오빠 얼굴  
듣기도 싫은 오빠 목소리

우리 사이도 금이 가버렸다.  
금이 간 뼈가 다시 붙는 것처럼  
우리 사이도 다시 붙을 수 있을까?



# 작품 해설



## 2-1 박휘은

우리 학교에서 시 쓰기 수행평가를 하였다. 친구들이 쓴 시가 모여 있는 시집을 읽었다. 시집에 나온 시들을 설명하겠다. 운율, 반어, 역설이 들어간 시를 설명하겠다.

먼저 운율이 들어간 시에는 김다은의 ‘지우개’, 김나경의 ‘모르겠습니다’, 유하은의 ‘할머니 덕’이 있다. 김다은의 시에는 같은 끊어 읽기 도막이 반복되므로 음보율(3음보)이다.

*매일 / 도망가는 / 지우개  
필요할 때만 / 도망가는 / 지우개*

김나경의 시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소리인 ‘모르겠습니다’가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가 무엇인지 .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왜 6월 4일인지.*

유하은의 시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소리인 ‘내어주신다’가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할머니 덕에 갔다.  
어서 오라며 점심을 내어주신다.  
고기, 상추, 쌈장, 쌈무 맛있게 먹으라며 내어주신다.*

다음으로 반어가 드러난 시에는 서하늘의 ‘방탄콘서트’, 이다현의 ‘티켓팅’, 김찬비의 ‘사소한 사건’이 있다. 서하늘의 시에는 ‘너무 행복해 눈에서 물이 흘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픈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이다현의 시에는 ‘티켓팅할 때마다 고맙지만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이.선.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만 보고 싶다는 것을 ‘고맙다’라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김찬비의 시에는 ‘그러다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중한 강아지가 죽은 것은 사소한 사건이 아닌 것을 사소한 사건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마지막으로 역설이 드러난 시에는 유보원의 ‘작심육일’, 정희은의 ‘시골’, 손지은의 ‘중학교 2학년’이 있다. 유보원의 시에는 ‘매년 필요한 듯 필요하지 않은 다이어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정희은의 시에는 ‘시골은 아무 것도 없지만 가장 많은 곳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많은 곳을 아무 것도 없다고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손지은의 시에는 ‘크면 클수록 나는 왜 더 작아지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점점 커지는 것을 더 작아진다고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이상으로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였다. 친구들이 쓴 온라인 시집을 읽으니 시에 담긴 친구들의 여러 경험들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의 시를 읽고 운율, 반어, 역설이 들어간 시를 찾아보고, 해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 보았는데 국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제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감동적인 시도 많았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우리 학교에서 시 쓰기 수행평가를 하였다. 친구들이 쓴 시가 모여 있는 시집을 읽었다. 시집에 나온 시들을 설명하겠다.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겠다.

먼저 운율이 드러난 시는 장수빈의 ‘혼자’, 권윤지의 ‘상처’, 김나영의 ‘밤하늘’이 있다.

장수빈의 시에는 ‘혼자’가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등교할 때 혼자*

*하교할 때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화장실 갈 때 혼자*

권윤지의 시에는 ‘나의 ~이 ~는 건 왜일까?’라는 부분이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나의 얼굴이 노래지는 건 왜일까?*

*나의 입술이 파래지는 건 왜일까?*

김나영의 시에는 ‘엄마, 내 꿈은 ~이야.’라는 부분이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엄마 내 꿈은 선생님이야.*

*엄마 내 꿈은 가수야.*

*엄마 내 꿈은 파티시엘이야.*

다음으로 반어가 드러난 시에는 서하늘의 ‘방탄콘서트’, 김

찬비의 ‘사소한 사건’, 이다현의 ‘티켓팅’이 있다.

서하늘의 ‘방탄콘서트’라는 시에는 ‘코로나 덕분에 콘서트는 취소되었다. 너무 행복해 눈에서 물이 흘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렵게 당첨된 콘서트로 들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눈에서 물이 흐른다. 즉, 눈물이 날 만큼 슬프다는 마음을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하였으므로 반어이다.

김찬비의 시는 ‘그러다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의 끝부분을 읽어 보면 찬비가 키운 복순이는 찬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운 강아지라고 한다. 처음인 건 알았지만 끝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찬비의 강아지는 죽은 것이다. 찬비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테지만 누구나 결국 죽기 마련이니 뻔하다고 하였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기에 사소하다고 반대로 말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에 반어이다.

이다현의 시에는 ‘티켓팅할 때마다 나와 줘서 고맙지만 우리 이제 그만 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이미 선택된 좌석’, 즉 너는 선택할 수 없으니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는 의미의 알림인 ‘이.선.좌.’에게 하는 말인데, 티켓팅할 때 자꾸 나오면 짜증이 날 텐데 매번 나와 줘서 고맙다고 반대로 표현하였으므로 반어이다.

마지막으로 역설이 드러난 시에는 이수현의 ‘새 것’, 장성빈의 ‘이긴 것만 같은 3등’, 정희은의 ‘시골’이 있다.

이수현의 시에는 ‘엄마의 물건은 항상 낡았지만 새 것. 엄마의 삶도 낡았지만 새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낡았지만 새 것’이라는 표현은 서로 반대되지만 오래되어도 새 것만큼 좋고, 아직 괜찮다는 뜻이 담긴 것 같고, 서로 반대되게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장성빈의 시에는 ‘졌지만 이긴 것 같은 느낌. 못했지만 잘

한 것만 같은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이긴 것과 진 것, 못한 것과 잘한 것이 서로 반대되므로 역설이다.

이상으로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였다. 친구들이 쓴 시집을 읽으니 그냥 재밌는 상황이기만 했던 소설도 있지만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시도 많았다. 특히 이별이나 사랑 등 무거운 주제로 쓴 시들도 많기도 하고 작게나마 공감이 되어 잘 읽혀졌다.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에 모아둔 것 같기도 하고, 평소 까불거리던 친구의 진중한 마음이 드러난 시를 보니 다소 오글거렸다. 내 시가 없는 건 좀 속상하였고 내 시를 다른 친구들이 읽었으면 뭐라고 반응하였을지 궁금하였다. 이 시의 주인공이 자기일 거라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오글거린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고 시를 못 낸 아쉬움이 크다.

다음에는 다 같은 주제로 써 보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라는 건 작가의 뇌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도 받았다. 특정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 또한 다양해서 재밌었다.

우리 학교에서 시 쓰기 수행평가를 했다. 친구들이 쓴 시가 모여 있는 시집을 읽었다. 시집에 나온 시들을 설명하겠다.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겠다.

먼저 운율이 드러난 시는 김선우의 ‘병’, 장수빈의 ‘혼자’, 유보원의 ‘작심육일’이 있다. 김선우의 시에는 시의 한 연의 시작이 ‘병은~’으로 시작해 음위율이다. 장수빈의 시에는 1, 3, 4연의 맨끝에 ‘혼자’가 반복되어 음위율이다. 유보원의 시에는 3연까지 12글자씩 반복돼 음수율이다.

다음으로 반어가 드러난 시에는 김찬비의 ‘사소한 사건’, 이다현의 ‘티케팅’, 서하늘의 ‘방탄콘서트’이다. 김찬비의 시는 자신의 강아지가 죽었는데 사소한 사건이라 했고 이다현은 이미 선택된 좌석이어서 티켓팅에 실패했는데 그것 보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서하늘은 콘서트가 취소됐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한 게 반어이다.

다음으로 역설이 드러난 시에는 이가현의 ‘가족’, 손지은의 ‘중학생 2학년’, 장성빈의 ‘이긴 것만 같은 3등’이다. 이가현의 시에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이 역설이고 손지은의 시에는 ‘크면 클수록 왜 더 작아지는지’, 장성빈의 시에는 ‘졌지만 이긴, 못했지만 잘한’이 역설이다.

이상으로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했다. 친구들이 쓴 시집을 읽으니 친구들이 쓴 몇몇의 시 내용은 웃겼지만 슬픈 부분도 있었고, 정말 진지하게 쓴 친구들의 시를 보며 감동스러웠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니 역설, 반어 같은 표현이 있던 시들도 소름끼쳤다.

우리 학교에서 시 쓰기 수행평가를 하였다. 친구들이 쓴 시가 모여 있는 시집을 읽었다. 시집에 나온 시들을 설명하겠다.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겠다.

먼저 운율이 드러난 시에는 원예현의 ‘악마와 천사’, 유진모의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 송한비의 ‘福권’이 있다. 원예현의 시에는 마지막에 ‘ㅏ’가 반복되므로 음위율이다.

*코로나19는 악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코로나19는 악마다  
목숨을 빼앗아 간다*

유진모의 시에는 4도막으로 끊어 읽는 게 반복되므로 음보율이다.

*저는요 / 완벽하지 / 았는 것 / 같아요  
아니야 / 누구나 / 완벽하지 / 았아  
어려운 / 시기를 / 이겨냈다 / 하더라도  
정확히 / 씨앗이 / 싹트는 것은 / 아니니깐*

송한비의 시에는 7글자가 반복되므로 음수율이다.

*나는 아빠의 福권  
아빠는 나의 福권*

다음으로 반어가 드러난 시에는 서하늘의 ‘방탄콘서트’, 이

다현의 ‘티켓팅’, 김찬비의 ‘사소한 사건’이 있다.

서하늘의 시에는

*너무 행복해 눈에서  
물이 흘렀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슬프고 속상하지만 행복하다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이다현의 ‘티켓팅’ 시에는

*고맙지만 우리 이제 그만 보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선.좌.’가 보기 싫고 짜증나지만 ‘고맙지만’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김찬비의 시에는

*그러다 일어난 뻘한 결말  
그러다 일어난 사소한 사건*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 키우는 강아지와 이별하는 것은 큰 사건이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뻘한 결말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반어이다.

마지막으로 역설이 드러난 시에는 장성빈의 ‘이긴 것만 같은 3등’, 추하나의 ‘렌즈’, 김선우의 ‘병’이 있다.

장성빈의 시에는

*하지만 우리 팀의 패배  
그래도 우리의 기분은 이긴 것만 같은 기분이다*

*졌지만 이긴 것만 같은 느낌  
못했지만 잘한 것만 같은 느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게임에서 졌고, 경기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긴 것 같고, 잘했다고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추하나의 시에는

*나에게는 작지만 큰 싸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렌즈는 작고, 렌즈를 넣은 일은 쉬울 수 있지만 나에게는 어려우니 작지만 큰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역설이다.

김선우의 시에는

*병은 나쁘다.*

*병은 좋은 거다.*

*병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없기도 하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해서 나쁘고, 필요없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 주고 우리를 어른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좋고 필요하기도 하다고 표현했으므로 역설이다.

이상으로 운율, 반어, 역설이 드러난 시를 설명하였다. 친구들이 쓴 온라인 시집을 읽으니 우리 친구들이 시를 굉장히 잘 쓴 것 같고 시 속에서 운율, 반어, 역설을 찾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일이라는 느낌이 든다.



스승의 날 맞이  
<시 편지> 쓰기



서연주 선생님께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시가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사랑의 의미를 담아 보내용. 그냥 좋은 것이 제일 좋다는 말처럼 저도 선생님이 그냥 좋습니다♥

- 송한비

그냥 좋은 것

원태연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최지영 선생님께  
제 중학교 첫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좋았던 선생님 같아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아직까지 시를 잘 모르고  
시를 잘 쓸 줄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붓꽃이라는 꽃말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세요  
이 시를 최지영 선생님께 바칩니다  
- 김혜원

붓꽃

김혜원

돌아보고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좋았던 그날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입학날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 보듬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한 학년 올라왔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  
라고 하셨던 붓꽃

좋은 말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류정인 선생님

항상 아닌 척하시면서 학생부터 챙겨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을 때는 제대로 칭찬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제대로 혼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 노희진

스승의 날

윤보영

행복한 사람은

가슴에 참 스승 한 사람을 담고 지낸다 했습니다.

꽃을 보면

꽃이 필 수 있는 여유를 일깨워 주고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길러 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신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당신

오늘 스승의 날!

내 안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행복합니다.

김은정 선생님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계속 웃는 모습과 친절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답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다.

- 신채영

스승의 날

윤보영

마음은 행동에게  
행동은 마음에게  
서로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오늘은 그 스승을 갖게 해 준  
참 스승을 생각하게 해 준 날!

김우준 선생님께  
선생님 일 때메 많이 바쁘시죠  
저희를 신경 써 주시고 과제를 내시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학교가 돈을 더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로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 김지환

일을 열심히 잘하면 돈을 더 줘야지  
왜 일을 더 줘.

- 하상욱

윤지훈 선생님

시 내용 중 부레옥잠, 수련, 소금쟁이, 물방개, 붕어, 올챙이 모두 모두 품속에 안아주고 예쁘게 잘 키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윤지훈 선생님도 우린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쁘게 봐 주셔서 이 시를 골랐다.

- 박시은

백점 맞은 연못

박성우

하늘 선생님이  
연못을 채점한다  
부레옥잠 수련  
소금쟁이 물방개  
붕어 올챙이  
모두모두  
품속에 안아주고  
예쁘게 잘 키웠다고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빗방울로  
동그라미 친다

감천중 모든 선생님들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지도 몇 개월이 지났네요. 이 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제 마음을 담은 나태주 시인님의 ‘안부’입니다.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꼭 닮았어요. 보고 싶고 만나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몸 건강히 잘 계신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ㅎㅎ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희 같이 힘 내요!!

- 이효주

안부

나태주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행복한 만남

-서훈덕-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

마음속에 작은 촛불하나 🕯️

결 수 있었습니다 ✨

선생님의 언행을 본받아  
어디에 있더라도  
활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음을  
어디에 가서라도  
자랑하겠습니다



2학년 모든 선생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선생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방법으로 인하여 학교 가는 것처럼 집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시는 하나지만 마음은 여러 개인 것처럼 꾸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셔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윤비

찍은날: 2020.8.3.

퍼낸날: 2020.8.14.

발행인: 김소정

편집인: 김종수

지은이: 2020학년도 감천중학교 2학년